

Ye's 가족 이야기 (2022-02)

[고전3:6, 새번역]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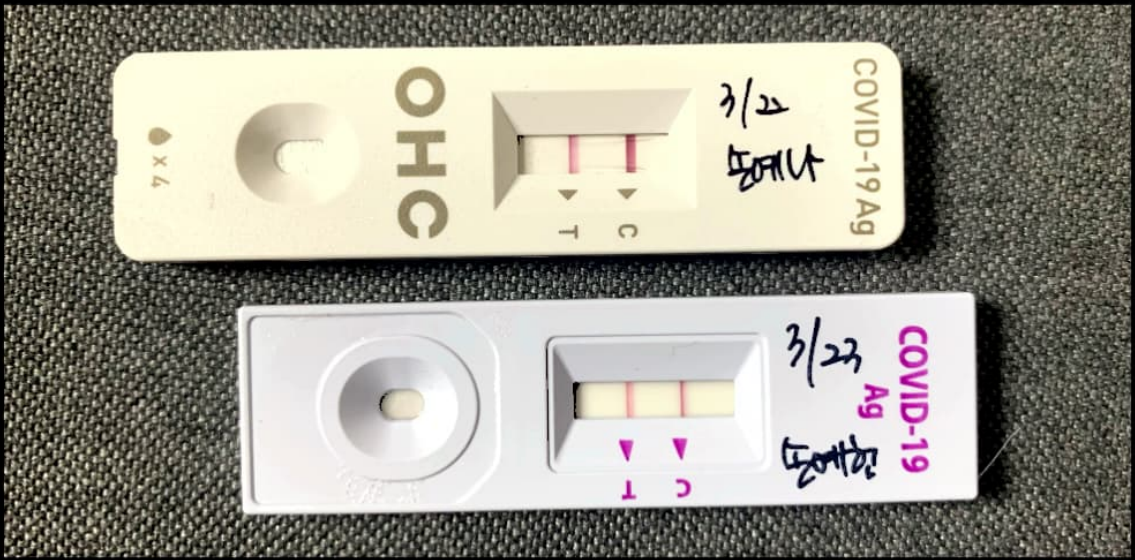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캄보디아로 인도하신지 100여일이 다 되어 갑니다. 주님은 그 시간 속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때에 맞는 만남과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으며 주를 향해 빈 손을 들 때에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심는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물을 주는 자인 보내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간증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선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저 씨 부리는 일에.. 그저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 오늘도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기도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저희 가정에게 낯선 땅에서 동역함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캄보디아는 COVID-19에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고 얘기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도착했을 때 역시 코로나 상황이라고 믿기 어려울만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투명하지 못한 상황보고이기에 신뢰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저희도 동의했었습니다. 최근 저희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생겼었습니다. 확진을 받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자가격리를 하며 해열진통제로 회복이 될 때까지 견디셨었습니다. 저희 가정 역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염려되어 최대한 안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역시 코로나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둘째와 셋째 아이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막내가 며칠 고열에 시달렸으나 코로나가 아니어서 아이들 역시 감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확진이 되어 다른 가족과 분리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격리시켜 휴식을 취해 주는 것 입니다. 예나와 예현이가 후유증 없이 회복되도록.. 확진되는 식구가 더 생기지 않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Khmer language & training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어의 습득을 위해 프놈펜 왕립학교의 언어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할때는 일반 크메르어가 아닌 왕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언어의 습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이번학기에 강좌가 열리지 못했고 저희는 어학원에 등록해서 기초를 익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회에서 주최하는 '영성훈련'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며 가장 중요했던 성경 묵상을 다시 다듬으며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말씀에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4복음서 묵상을 통한 예수님의 행적 찾기'에 참여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을 나누는데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 그 날의 깨달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 그림 하나가 나눔방 모두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About Cambodia



<왓프놈과 킬링필드>

지난 달에 저희는 뚜옹슬랭 대학살 박물관을 방문해서 캄보디아의 근현대사를 눈으로 담아 보았었습니다. 그 후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 프놈펜 도시의 기원의 배경이 되는 왓프놈사원과 킬링필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왓프놈은 캄보디아인들의 95%를 차지하는 불교인들의 불심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마침 음력설을 맞아 한해의 평안을 위해 사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보았습니다. 또한 킬링필드의 현장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역사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까지 이들을 움아매는 이 사건을 가슴으로 느끼며 캄보디아의 각 분야에 참리더들이 필요하며 교육을 몰살했던 이들에게 교육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곳의 방문으로 저희 가정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의 시작과 불심을 보았고, 가슴아픈 근현대사와 이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통해 한층 성숙하길 바라는 갈망을 보았으며, 죽은 교육을 다시 살려 캄보디아를 도약시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

1. 캄보디아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2. 선조들의 피값으로 이어 온 캄보디아 기독교의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3. 캄보디아의 고통받는 소외계층, 여성,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4.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가 안정이 되게 하옵소서.
5. 캄보디아 다음세대 제자들이 자국의 선교사, 아세안의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Ye's Fam을 위한 기도

1. 손형식. 이가람 선교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자녀 선교사들이 일찍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2. 예나와 예현이가 후유증 없이 코로나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남은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3. 아이들 교육비가 준비되게 하시고 차량을 준비 할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 크메르어를 배우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5. 마카라형제가 저희 가정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6. 매일 내리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저희 가정의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7. 사역의 안정적인 기반을 위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8. 우리의 나약함이 주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지랑이 되게 하옵소서.



Congratulations



<예훤이 돌과 예서의 졸업식>

막내 예훤이의 첫돌과 첫째 예서의 졸업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예훤이가 첫돌을 맞았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건강하게 1년을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오늘의 기쁜 날을 맞이 하였습니다. 받은 사랑들은 저희 부부가 잘 알려 주어서 그 받은 사랑을 이 땅의 형제, 자매에게 베푸는 사랑 많은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예훤이의 첫돌을 함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서는 4살 어린이집부터 13살 SIA에 오기까지 단 한해도 같은 기관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매해 이동이 있었고 항상 다른 집단에 적응을 해야 했지만 불평 한번 없이 늘 주님이 준비해두신 귀한 만남을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해 역시 주님이 보내신 땅 캄보디아로 오게되어 졸업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서운하긴 하지만 가족끼리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예서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찾아가는 자녀선교사가 되길 함께 응원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자녀들은 홈스쿨링을 모티브로 하는 SIA(Stepping Stone International Academy)에 재학 중입니다. 지금은 수업의 주언어인 영어를 배우기 위해 언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영어와의 싸움중이지만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이 되면 학교의 정규과정에 등록을 하고 예쁜 교복도 입고 아이들의 각 학년에 맞게 수업을 진행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스쿨버스 사용료가 높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어있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학교의 경우 스쿨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 똑똑이 두 대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마카라 아저씨'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마카라는 예전에 그랩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랩을 타려고 기다리는 7명의 가족(너무 눈에 띄는)을 보더니 먼저 저희 가족을 기억한다며 인사해 줘서 그 후로 교제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사실 저희는 너무 많은 그랩 기사를 만나서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7명의 가족이 그랩을 부르다보면 가끔 승차거부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억해 주며 반겨주는 이도 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마치 이 땅이 저희를 반겨주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마카라와의 교제를 통해 캄보디아를 느끼듯 저희 가정을 통해 캄보디아가 주님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도 선교사님들께 은혜있기를 소원합니다.

 후원문의

파송단체 : 바울선교회 [063.254.8418](tel:063.254.8418)

이메일 : hsson77@naver.com

카톡ID: hsson77 / GorgeousRiver

연락처 : 010.4850.0179 / 010.3011.7009

손형식. 이가람 선교사

예서. 예나. 예헌. 예온. 예흠 자녀선교사 드림

